

한·일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

: 고교생교류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후카호리 스즈카 _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오탈현(교신저자) _ 경희사이버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인적교류의 고찰과 기존연구
- III.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주요 특징
- IV. 인적교류 사업 사례 분석
- V. 요약 및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일 인적교류의 진화과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문객, 유학생, 취업생 등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고교생교류캠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최근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던 한국 방문 일본인의 숫자도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양국을 오가는 방문자 숫자도 700만 명을 넘어섰다. 둘째 한국인의 일본 유학은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학을 했던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서 일본기업 등에 취업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고교생교류캠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바와 같이 미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고등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인적교류, 관광객, 유학생, 취업, 일본

.....

I .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간의 인적교류의 주요 특징 분석과 더불어 한일 고교생교류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간 인적교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중심에는 인적교류가 있고, 현존하는 한일 갈등 역시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인적교류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한 이면에는 최근 활발하게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인력 부족과 한국은 취업난이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양국을 왕래한 사람은 불과 1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 500만 명을 넘어 2016년에는 738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의 필요성과 왕래의 증가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양국 청소년들의 생각일 것이다. 즉 한·일 고등학생들이 상대국 혹은 양국 간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래 한·일 교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일 고교생교류 사업을

사례로 분석하여 한·일 인적교류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한·일 인적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에 원용하는 것은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일 산업인재 육성사업’인 ‘한일고교생교류캠프’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의 목적은 한일 양국 청소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제체험교육과 한·일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로 사업아이템의 구상 및 전략의 수립, 발표까지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체험·연구·기획하면서 창의력의 향상 및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다음 II장에서는 인적교류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한일 인적교류 현황을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IV장에서는 한일 고교생교류 사업의 성과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한다. 마지막 V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한·일 인적교류의 진화방향에 대해 시범적으로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 인적교류의 고찰과 기존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적교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이 오가는 인적교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단기 및 장기로 나뉘볼 수 있으며, 단기교류는 관광과 연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은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부터 가족방문, 산업시찰, 문화교류 사업에의 참여 등으로 항목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는 기업 간 제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기술자교류와 기능실습, 문화활

동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 등이 포함된다.

〈표 1〉 인적교류 구성과 분류 항목

	구성요소	분류항목
단기	관광	여행, 가족방문, 산업시찰, 문화교류 사업 참여 등
	2. 연수	기업 간 제휴에 의한 기술자교류, 기능실습, 문화 활동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 등
장기	3. 유학	어학 학습을 목적으로 한 유학, 정규 과정 취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
	4. 취업	기업내 전직, 대졸, 신규채용, 인턴, 경력직 채용, 워킹홀리데이 등
	5. 혼인	상대국 국적 소유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한편 장기 인적교류는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들 수 있다. 유학은 어학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정규 과정 취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이 있을 수 있다. 취업은 기업내 전직과 대졸 및 경력직 채용, 인턴 및 워킹홀리데이 등의 인적교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혼인은 상대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인적교류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 일반화된 이론적 배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인적교류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를 통해 시도한 구성요소와 분류항목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일간 인적교류를 다룬 국내의 기존연구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최근 한국의 취업난과 일본의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서로의 문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¹⁾ 이 연구는 한국은 높은 청년실업률 등 일자리 부족 현상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호전되면서 일본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1) 류영진, 「부산-후쿠오카 지역에 있어서의 인재교류의 필요성과 방향성」, 『부산 발전포럼』, 2017.

현실에 근거하여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일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적 성과로는 한일 간 기술 및 인재교류의 확대 방안을 도출한 연구를 들 수 있다.²⁾ 연구결과로는 기술자 교류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기술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글로벌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한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인적교류의 향후 발전방안을 한일 방문객, 유학생 및 취업자의 변화 추이와 더불어 한일 고교생 교류 사업의 성과를 통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에서는 한일 간 방문객, 유학생, 취업자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한일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한·일 인적교류 현황 및 주요 특징

우선 인적교류 현황을 방문자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수는 2016년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적별로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이 일본 방문 외국인으로서는 1위를 유지해 왔지만, 2014년에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275만 5,313명을 기록했는데도 대만인(282만 9,821명)에 이어 2위로 후퇴했다. 2015년 한국인 방일 자수는 전년대비 45.3% 증가한 400만 2,095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년대비 107.3% 증가한 중국인(499만 3,689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27.2% 증가한 509만 302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고, 중국인

2) 요시모토 코지·이홍배, 「한일간 소재부품산업의 기술 및 인재교류 확대 방안」, 『한일경상논집』 62권, 2014.

방일자수도 전년대비 27.6% 증가하여 637만 3,564명을 기록했다. 또한 일본정부관광국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9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21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3% 증가하여 9개월간 만에 전년 기록을 상회하는 등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국적별 일본방문 외국인수 및 비중 추이(단위: 명, %)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총	5,211,725	6,727,926	8,346,969	8,611,175	10,363,904	24,039,700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중국
	1,459,333 (28.0)	1,747,171 (26.0)	2,600,694 (31.1)	2,439,816 (28.3)	2,456,165 (23.7)	6,373,564 (26.5)
2	대만	대만	대만	중국	대만	한국
	785,379 (15.1)	1,274,612 (19.0)	1,385,255 (16.6)	1,412,875 (16.4)	2,210,821 (21.3)	5,090,302 (21.2)
3	미국	미국	중국	대만	중국	대만
	655,821 (12.6)	822,033 (12.2)	942,439 (11.3)	1,268,278 (14.7)	1,314,437 (12.7)	4,167,512 (17.3)
4	중국	중국	미국	미국	미국	홍콩
	448,782 (8.6)	652,820 (9.7)	815,882 (9.8)	727,234 (8.4)	799,280 (7.7)	1,839,193 (7.7)
5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미국
	260,214 (5.0)	298,810 (4.4)	432,042 (5.2)	508,691 (5.9)	745,881 (7.2)	1,242,719 (5.2)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일본인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계속 1위를 기록해 왔다. 2004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244만 3,070만을 기록하여 전체 외국인수의 42.0%를 차지하는 정도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중국인 방문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한 일본인은 2016년에 13.3%(229만 7,893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3위의 미국인 방한자수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국적별 한국방문 외국인수 및 비중 추이(단위: 명, %)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총	4,752,762	6,022,752	6,448,240	8,797,658	12,175,550	17,241,823
1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중국	중국
	1,802,542 (37.9)	2,440,139 (40.5)	2,235,963 (34.7)	3,023,009 (34.4)	4,326,869 (35.5)	8,067,722 (46.8)
2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512,768 (10.8)	710,243 (11.8)	1,068,925 (16.6)	1,875,157 (21.3)	2,747,750 (22.6)	2,297,893 (13.3)
3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421,602 (8.9)	530,633 (8.8)	587,324 (9.1)	652,889 (7.4)	722,315 (5.9)	866,186 (5.0)
4	필리핀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216,627 (4.6)	351,437 (5.8)	335,224 (5.2)	406,352 (4.6)	544,662 (4.5)	833,465 (4.8)
5	대만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홍콩
	194,586 (4.1)	222,655 (3.7)	263,799 (4.1)	297,452 (3.4)	400,686 (3.3)	650,676 (3.8)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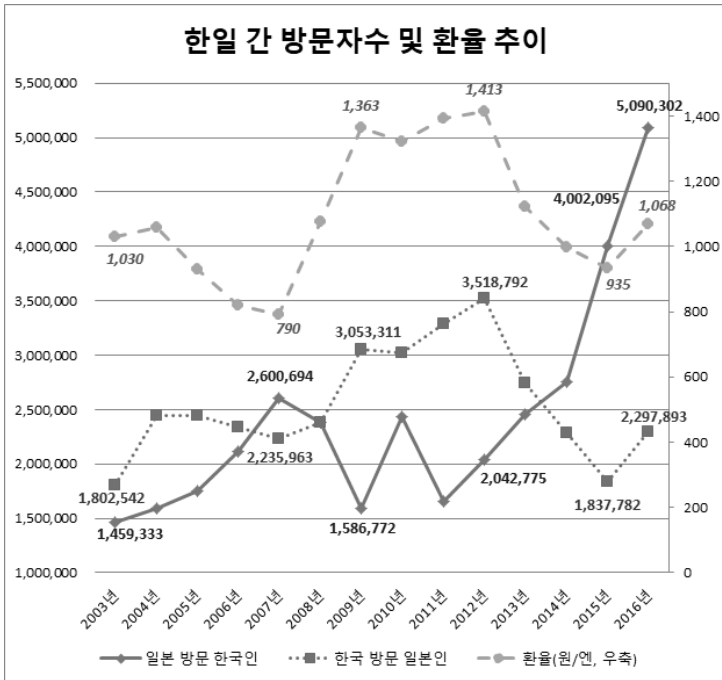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요인으로 간주되는 2008년, 2009년과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요인으로 생각되는 2011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에서 한국인 방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의 28.0%에서 2016년은 21.2%로 축소했지만, 방문자수는 13년간에 약 2.5배 증가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수는 2012년의 351만 8,792명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 정치적인 한일관계의 악화가 방한 일본인 감소 원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2005년부터 2007년에도 방한 일본인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2004년 1월 1일 및 2005년 10월 17일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2005년 3월 16일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일본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문제가 다발함으로써 한국에서 반발이 일어나 양국 관계가 악화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는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수가 다시 회복해 가고 있지만, 이 배경에는 새로운 K-pop 그룹의 일본 진출 등으로 인하여 한국 화장품, 패션과 같은 소비재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등을 비롯하여 문화적 교류 확대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수는 환율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한일 간 방문자수와 원/엔 환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한국 방문 일본인은 엔高·원低가 되었을 때 증가하고 엔低·원高인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방문 한국인도 2015년 이전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며, 양국 간에서 상반되는 형상이 보였는데 2016년은 엔高·원低인데도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수가 증가

(그림 1) 한일 간 방문자수 및 환율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사업이 잘 되어 여행지로써의 일본의 매력이 환율이라는 장애요인보다 효과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근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감소한 대신 반동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한일 간의 유학생수를 살펴본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유학을 가는 국가로써는 미국이 가장 많고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규모도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한국인은 2010년의 2만 7,965명을 정점으로 5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는 1만 6,374명의 한국인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였다.

〈표 4〉 주요국 한국인 유학생수 및 비중 추이(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216,867	240,949	251,887	262,465	239,213	227,126	219,543	214,696
미국	62,392 (28.8)	69,124 (28.7)	75,065 (29.8)	72,153 (27.5)	73,351 (30.7)	72,295 (31.8)	70,627 (32.2)	68,105 (31.7)
중국	57,504 (26.5)	66,806 (27.7)	64,232 (25.5)	62,957 (24.0)	62,855 (26.3)	63,488 (28.0)	63,465 (28.9)	62,923 (29.3)
일본	17,274 (8.0)	18,862 (7.8)	27,965 (11.1)	25,692 (9.8)	19,994 (8.4)	18,919 (8.3)	17,283 (7.9)	16,374 (7.6)
호주	16,774 (7.7)	18,150 (7.5)	17,829 (7.1)	33,929 (12.9)	17,256 (7.2)	14,180 (6.2)	14,139 (6.4)	14,303 (6.7)
영국	17,000 (7.8)	17,031 (7.1)	17,275 (6.9)	17,310 (6.6)	12,580 (5.3)	12,512 (5.5)	7,062 (3.2)	13,002 (6.1)
캐나다	10,792 (5.0)	15,971 (6.6)	14,104 (5.6)	15,808 (6.0)	20,658 (8.6)	12,477 (5.5)	9,828 (4.5)	10,964 (5.1)
기타	35,131 (16.2)	35,005 (14.5)	35,417 (14.1)	34,616 (13.2)	32,519 (13.6)	33,255 (14.6)	37,139 (16.9)	29,025 (13.5)

자료: 교육부, “2016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에 비하여, 일본학생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유학지원 정책 등으로 2008년 대비 2015년에는 유학

을 간 일본인수는 약 1.3배 증가했다. 일본에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가장 많고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 협정 등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간 일본인학생은 2015년에 3,713명으로 전체에서 6.8%를 차지했다. 최근의 추세로써는 2012년의 4,365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주요국 일본인 유학생수 및 비중 추이(단위: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23,988	24,508	28,804	36,656	43,009	45,082	52,132	54,455
미국	6,403 (26.1)	5,925 (24.7)	7,454 (25.9)	8,602 (23.5)	10,355 (24.1)	11,005 (24.4)	12,432 (23.9)	12,383 (22.7)
캐나다	2,459 (11.7)	2,599 (10.8)	3,255 (11.3)	3,586 (9.8)	4,087 (9.5)	4,209 (9.3)	4,890 (9.4)	5,424 (10.0)
호주	2,864 (9.8)	2,509 (10.5)	2,851 (9.9)	3,189 (8.7)	3,946 (9.2)	4,443 (9.9)	5,170 (9.9)	5,363 (9.8)
영국	2,459 (11.7)	2,599 (10.8)	2,567 (8.9)	3,192 (8.7)	3,709 (8.6)	3,993 (8.9)	4,262 (8.2)	4,008 (7.4)
중국	2,154 (8.8)	2,269 (9.5)	2,939 (10.2)	4,447 (12.2)	4,414 (10.3)	2,859 (6.3)	3,836 (6.7)	3,477 (7.0)
한국	1,745 (7.1)	1,891 (7.9)	2,573 (8.9)	3,853 (10.5)	4,365 (10.1)	4,040 (9.0)	4,217 (8.1)	3,713 (6.8)
독일	888 (3.6)	923 (3.8)	1,069 (3.7)	1,274 (3.5)	1,443 (3.4)	1,598 (3.5)	1,719 (3.3)	1,708 (3.1)
뉴질랜드	861 (3.5)	780 (3.3)	856 (3.0)	1,021 (2.8)	1,080 (2.5)	1,526 (3.4)	1,575 (3.0)	1,618 (3.0)
기타	4,155 (17.3)	7,609 (31.0)	5,240 (18.2)	11,074 (30.2)	13,971 (32.5)	15,445 (34.3)	14,031 (26.9)	16,761 (30.8)

자료: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협정 등에 따른 일본인학생 유학상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일본 내의 유학생 취업 현황을 살펴본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중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2,043,872명, 특별영주자 수는 338,950명으로 재류 외국인 총수는 2,382,822명이었다. 이는 2015년 말 대비 6.7% 증가한 150,633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취업활동중인 외국인 노동자수는 약 108만 명이며 재류 자격별로 보면 영주자, 교포, 배우자 등의 신분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고, 이어 유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격 외 활동' 등이다.

(표 6) 국적 및 재류자격별 일본 내 취업활동자 수(단위: 명)

국가	전문, 기술직	특정 활동	기능 실습	자격 외 활동	영주권자 등	기타	계
중국	84,229	3,469	84,373	85,275	87,306	6	344,658
한국	20,937	2,296	146	7,150	17,590	2	48,121
필리핀	6,371	1,592	20,846	1,114	97,591	4	127,518
베트남	12,437	1,436	72,740	46,135	9,267	3	172,018
네팔	4,677	2,545	321	42,702	2,616	0	52,770
브라질	565	16	53	174	105,789	0	106,597
페루	95	8	42	60	25,867	0	26,072
G7/8+ 호주 + 뉴질랜드	39,446	1,426	33	1,862	24,557	31	67,355
기타	32,237	5,955	32,554	25,105	42,806	3	138,660
계	200,994	18,652	211,108	239,877	413,389	49	1,083,769

자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 2017.

또한 2015년에 유학 비자로 체류했던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기업 등 취업을 이유로 비자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17,088명이며 이 중 15,657명이 허가를 받았다. 취업 비자로 변경한 한국인 유학생은 1,288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 유학생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인원의 절대적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서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에 7,831명이었던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수가 2015년에는 약 2배로 증가함으로써 총 외국인 취업자 수가 확대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국적별 2015년 취업 비자 변경 허가 인원수 내역(단위: 명, %)

국적	중국	한국	베트남	대만	네팔
인원수	9,847명	1,288	1,153	649	503
(비중)	(62.9%)	(8.2)	(7.4)	(4.1)	(3.2)

자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7).

〈표 8〉 한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변경 허가 인원수 추이(단위: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수	1,205명	1,209	1,417	1,227	1,234	1,288
(비중)	(15.4%)	(14.1)	(12.9)	(10.5)	(9.5)	(8.2)

자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7).

이상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인에게 일본은 여행 관광지 또는 해외 취업지로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0만 명, 즉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이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적교류가 상호 간에서 활발하게 되어 있다면, 일본에서도 유사한 수준만큼이 한국을 방문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인구 1억 2,000만 명에 대해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230만 명으로 약 2% 수준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한류 문화의 발신지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멤버에 일본인이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도 있어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한 그룹은 일본시장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본국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국내 시장이 활발한 상황에서는 환율에 따라 방문 동기부여가 좌우되는 일반 사람들보다 환율에 상관없이 몇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리피터(repeater; 음식점, 숙박 시설, 여행지 등에서 같은 곳을 여러 번 이용하는 사람)만 오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인적교류를 한일 경제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양국

간에서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사항이다. 유학 경험의 유무는 유학을 간 국가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진로 선택,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 경영자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외국기업을 상대할 것인지 등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 경험이 있는 국가에 이를 고려했을 때 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대학생 시절에 한국인학생들이 일본 유학을, 일본인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차 한일 양국의 미래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청년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사업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성과를 분석해 본다.

IV. 인적교류 사업 사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는 공동 주최로 한일 산업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바로 '한일고교생 교류캠프(이하, '고교생캠프')'이다. 현장 중심의 실무경제 체험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한일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한일고교생캠프의 개요

한일경제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교생캠프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한일 양국의 관광·문화 상품 등을 상대국에 판매하기 위한 국제비즈니스 아이템의 기획 및 마케팅 아이디어를 팀별로 받

표하는 실물경제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일한경제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년간은 사업 취지에 찬동한 회사 및 단체의 협찬금과 조성금으로 운영되었다. 2008~2011년은 일본정부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계획 사업 (JENESYS)'의 일환으로서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위탁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013~2016년은 일본정부의 아시아태평양주 국가들과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2.0' 및 'JENESYS2016'의 일환으로 (재)일한문화교류기금의 기획공모에서 낙찰하여 업무위탁금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2015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고교생캠프 OB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제공과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미래와 우호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일학생미래회의'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7년 2월 일본에서의 제1회 한일학생미래회의를 개최하여, 이래 2017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361명이 참석했다.

과거 개최 실적을 보면 제1회 고교생캠프는 2004년 1월 도쿄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제24회 개최되었다. 양국에서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2017년 제24회까지 한국 측 1,117명, 일본 측 1,101명으로 총 2,178명이다.

(표 9)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 실적

	기간	지역	한국 측	일본 측	합계
제1회	04.1.16~1.22	일본 도쿄	6개교 50명	4개교 62명	10개교 112명
제2회	04.7.26~7.30	일본 도쿄	31개교 52명	10개교 20명	41개교 72명
제3회	04.8.18~8.22	한국 서울	13개교 48명	7개교 46명	20개교 94명
제4회	05.2.11~2.15	일본 도쿄	27개교 54명	19개교 64명	46개교 118명
제5회	05.8.6~8.10	일본 도쿄	20개교 46명	17개교 44명	37개교 90명
제6회	06.2.9~2.13	일본 도쿄	23개교 47명	17개교 59명	40개교 106명
제7회	06.8.4~8.8	한국 서울	13개교 49명	16개교 38명	29개교 87명

제8회	07.2.9~2.13	일본 치바	22개교 38명	17개교 42명	39개교 80명
제9회	07.8.5~8.9	일본 도쿄	20개교 41명	20개교 34명	40개교 75명
제10회	08.2.10~2.14	한국 일산	20개교 39명	17개교 46명	37개교 85명
제11회	08.8.3~8.7	일본 도쿄	27개교 44명	25개교 44명	52개교 88명
제12회	09.2.1~2.5	한국 서울	23개교 50명	34개교 50명	57개교 100명
제13회	09.7.28~8.1	한국 용인	25개교 44명	31개교 44명	56개교 88명
제14회	10.2.2~2.5	일본 오사카	41개교 49명	24개교 39명	65개교 88명
제15회	10.8.3~8.7	한국 서울	34개교 49명	40개교 50명	74개교 99명
제16회	11.2.8~2.12	한국 서울	38개교 50명	39개교 50명	77개교 100명
제17회	11.8.2~8.6	한국 서울	34개교 47명	44개교 49명	78개교 96명
제18회	12.1.31~2.4	일본 오사카	34개교 50명	32개교 50명	66개교 100명
제19회	12.7.24~7.28	한국 서울	42개교 50명	40개교 50명	82개교 100명
제20회	13.7.28~8.1	일본 오사카	47개교 50명	39개교 50명	86개교 100명
제21회	14.7.27~7.31	일본 도쿄	40개교 50명	49개교 50명	89개교 100명
제22회	15.7.27~7.31	한국 서울	32개교 40명	35개교 40명	66개교 80명
제23회	16.7.29~8.3	일본 미야기	23개교 40명	32개교 40명	55개교 80명
제24회	17.7.24~7.28	한국 평창	30개교 40명	34개교 40명	64개교 80명
총			1,177명	1,101명	2,271명

자료: 한일경제협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최근 사업 추진 성과

1) 2016년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2016년에 개최된 제23회 고교생캠프는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에서 개최되었다. 제23회 캠프의 주요 목적은 동일본 대지진 5주기를 맞아 피해 지역인 미나미산리쿠를 한일 양국 학생들이 직접 둘러보고 지역 활성화·관광진흥, 서비스, 요양·복지, 농업 등의 사업 분야별 부흥 현장과 일본경제현장을 체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2일차에는 미나미산리쿠 지역의 우수한 어업 시설을 방문하여 참가자가 직접 양식 어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팀별로 축제 장소나 노인복지센터 등 각각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경영과 마케팅의 개

념을 몸으로 직접 습득했다. 3일차에는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의 가격, 홍보, 판매, 유통전략 등을 수립하여 팀별로 기획된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 준비를 추진했다.

사업 발표회에서는 한일 양측에서 참석한 내빈 앞에서 팀별로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 발표를 한다. 심사는 8~10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 아이템의 새롭고 독창적인가 여부’, ‘한일의 특징이나 문화융합 여부’, ‘사회성·공익성’,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제23회 캠프에서는 요양·복지 분야에서 요양원 이용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개인 복지 서비스를 고안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활성화·관광진흥 분야에서 미나미산리쿠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축제를 생각한 팀과, 요양·복지 분야에선 요양·복지 전문 컨설턴트 사업을 제안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2) 2017년 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2017년에 개최된 제24회 고교생캠프는 2018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무대인 평창에서 진행되었다. 제24회 캠프의 주요 목적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하여 관광, 자원봉사, 올림픽시설·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 분야별로 공동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실물경제체험·교류이었다.

학생들은 팀별로 올림픽 개최예정지나 한국경제의 현장을 견학했다. 그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올림픽 비즈니스 방안을 기획 및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한 개최개요 관련 강연을 듣고 스키점프대 및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구경했다. 또 각 팀이 담당하는 사업 분

야별로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시설에서 직접 업무를 체험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사업 발표회에서는 올림픽시설·서비스 분야에서 평창올림픽 관전 및 여행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숙박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인 간 숙박시설 중개서비스를 기획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올림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진동 발전 신발의 올림픽 기간 내 판매와 올림픽 이후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 마케팅을 발표한 팀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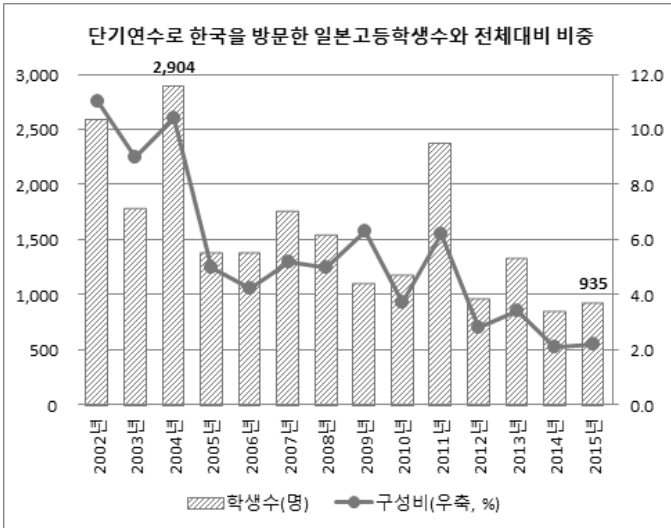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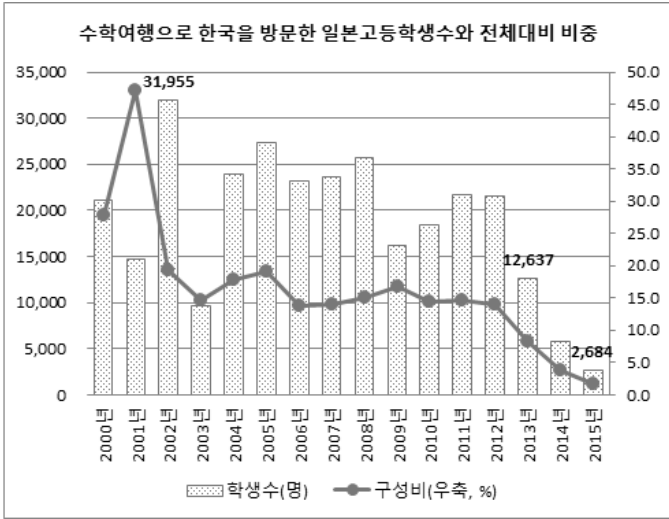
3. 사례 분석

청소년들에게 해외를 떠난다고 했을 때 학교나 기관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국 관계 악화나 그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따라 실시 자체가 쉽게 취소될 수 있다. 일본에서 수학여행 또는 단기연수³⁾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고등학생들이 최근에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에는 3만 1,955명의 일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2015년에는 2,684명까지 감소했다. 해외 수학여행을 간 전체에서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이것은 과거에는 일본국내 중심이었던 수학여행지가 점점 해외로 가는 여행으로 바뀌면서 여행지도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태평양주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화되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전국 수학여행 연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4개국으로 해외 수학여행지 전체의 80.2%를

3) 학교 간의 협정 등을 통하여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홈스테이, 실습 등을 목적으로 나가는 연수를 말한다.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대만 23.5%(2000년에는 1.04%), 호주 11.3%(6.96%), 괌 10.2%(1.0,3%) 등이 인기가 있는 여행지가 되었다.

〈그림 2〉 일본 고등학교의 對한국 수학여행 및 단기연수 참가자 수 및 구성비 추이



자료: 公益財団法人全国修学旅行研究協會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또한 한국이 가족여행 등으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배경에는 한일관계의 악화가 수학여행 선택지를 결정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목적지를 선택하고 갈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한국을 찾아간 일본 고등학생들은 935명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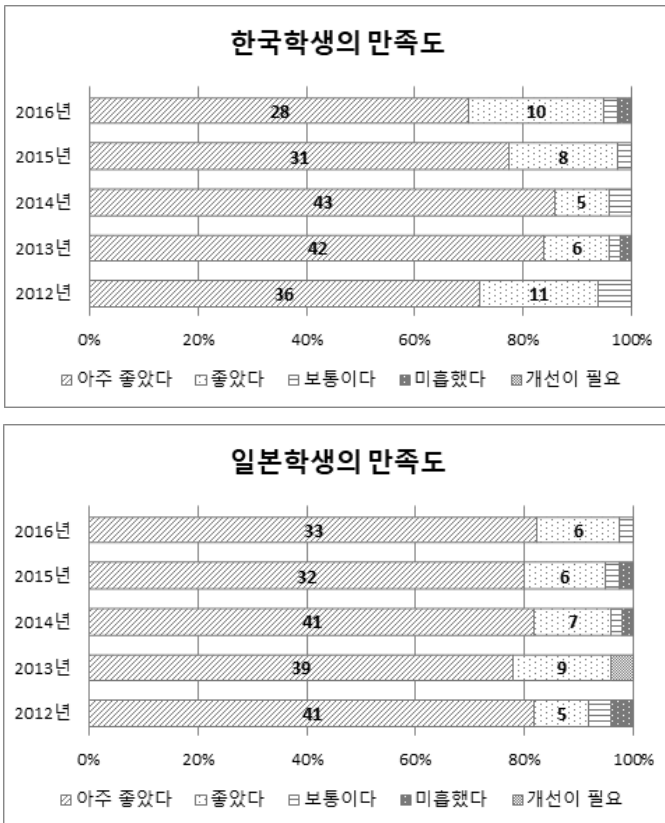
한일 산업인재육성사업 사무국에 따르면 2016년 제23회 고교생캠프와 2017년 제24회 고교생캠프 개최에 있어 ‘보호자의 불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제23회 캠프의 개최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였기 때문에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여름에 개최된 제24회 캠프 모집 시에는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 일본에서 큰 뉴스가 되어 있었으며, 일본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⁴⁾

이러한 양국 관계가 불안한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고교생캠프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 해에 2~3번 개최했던 것이 2013년부터는 여름에 한 번만 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개최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관계가 악화 또는 개선되어 왔다. 역사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지금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했던 시기에는 일본인들이 한국 방문을 피하는 경향이 보였다.

4) 한일경제협회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2017.10.11). 실제로 학생 파견이나 지사 체간 교류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된 사례도 있다. 「43년간 한국 찾았던 일본 고교, 올해는 한국 수학여행 연기 “안보상황 불안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21473196> (검색일: 2017.11.07); 『중앙일보』, 2017년 4월 13일.

한일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하는 작업은 서로 친해지기 위하여 자기소개, 팀명 결정 등 첫 소통 과정이다. 양국 학생들의 기초 정보와 특성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즐거운 캠프 분위기를 형성한다. 제19~23회 고교생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국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90% 이상이 '아주 좋았다' 또는 '좋았다'고 대답하는 등 캠프를 통하여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양호적인 관계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일본/한국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한일경제협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교생캠프의 경제체험교육 프로그램은 팀별로 학생들이 준비한 사업 아이템과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프레젠테이션, 홍보, UCC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의견 조율을 통하여 완성한 사업 계획 및 발표와 역할 분배로 팀워크 향상과 성취감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교생캠프 주최 관계자에 따르면 “캠프를 거쳐 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⁵⁾며 이 캠프 사업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인적교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문객, 유학생, 취업생 등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적교류의 사례로 고교생교류캠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환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던 한국 방문 일본인의 숫자도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양국을 오가는 방문자 숫자도 700만 명을 넘어섰다.

둘째 한국인의 일본 유학은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학을

5) 「한일 고교생 80명, 동계 올림픽 열리는 평창으로 여름캠프 떠난 까닭」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3130537> (검색일: 2017.11.07.); 『한국경제』, 2017년 7월 31일.

했던 한국인이 일본 현지에서 일본기업 등에 취업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고교생교류캠프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바와 같이 미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고등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가 불안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되지 않고 고교생캠프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다는 것은 한일 인적교류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한·일 인적교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최근에는 양국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인적교류의 이상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유학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일본인의 한국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국간 교류가 교차하는 이상적 인적교류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이러한 취업 동향이 양국에서 교차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한일 인적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0〉 한·일 인적교류 진화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관광	한국→일본 증가	일본→한국 증가	한국↔일본 증가
유학	한국→일본 증가	한국↔일본 증가	불확실
취업	한국→일본 증가	불확실	불확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계점은 제한된 인적교류 실적을 통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인적교류 실적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다시 검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한일 인적교류의 진화 과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분야별 인적교류의 미래를 확인하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은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케이조(小淵恵三) 총리 간 ‘한일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이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한일 간의 역사 속에서 문화개방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문화산업은 돈이 관련된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여론의 85% 이상이 문화개방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이 결단은 오히려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일본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⁶⁾ 이 20년 사이에 한일관계는 크게 변해 왔지만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많은 계기에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 특히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향후 한일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소년들이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쌍방의 인적교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5월 7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6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6) 崔相龍,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立ち返ろう」, 李鍾元 他 編, 『東アジア和解への道』, 岩波書店, 2016, p. 93; 유명환, 「북핵 위기와 한반도-21세기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구축은 가능하다?」,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과 시민사회-상호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사)한일미래FORUM 주최 제141회 세미나 자료집, 2017, p. 4.

참고문헌

- 류영진, 「부산-후쿠오카 지역에 있어서의 인재교류의 필요성과 방향성」, 『부산발전포럼』, 2017.
- 요시모토코지·이홍배, 「한일간 소재부품산업의 기술 및 인재교류 확대 방안」, 『한일경상논집』 62권, 2014.
- 유명환, 「북핵 위기와 한반도-21세기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구축은 가능한 다?」,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과 시민사회-상호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사)한일미래FORUM 주최 제141회 세미나 자료집), 2017.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 일본경제리포트(2017.6.27), 2017.
- 一般社団法人日韓經濟協會, 「第24回 日韓高校生交流キャンプ 開催報告」, 2017.
- 一般社団法人日韓經濟協會, 「平成29年度事業計画」, 2017.
- 公益財団法人全国修学旅行研究協會, 「全国公私立高等学校海外(国内)修学旅行・海外研修実施状況調査報告」, 2002~2015.
- 崔相龍,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立ち返ろう」, 李鍾元 他 編, 『東アジア和解への道』, 岩波書店, 2016.
-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https://www.jnto.go.jp/jpn/index.html>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kor.kto>
- 한일경제협회 홈페이지, <http://www.kje.or.kr/>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a Binational Camp of Korean and
Japanese Highschool Students -

Suzuka FUKAHORI · Tae-Heon OH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seeking a beneficial process of the Korean and Japanese personal exchange. To this end, the trend regarding the visitors,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of which there seems to be a relative shift in its pattern, was analyzed. Furthermore, as an ideal example, the case of a high school exchange camp was examined closely. The study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Japanese tourists visiting Korea showed sensitivity to the exchange rate, whereas the Korean counterparts touring Japan did not seem to be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displaying increase in the number. In addition, the number of visitors to Korea from Japan that started to decline in 2012 is again on the rise, and the total number of tourist exchange is over 7 million. Next, while a fewer number of Korean students are going to Japan to continue their studies, there is a consist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those who did pursue academic goals in Japan ended up securing employment in local Japanese companies. Lastly, the analysis of the case of high school exchange camp confirmed tha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uch exchange programs, who no doubt will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Key words

interpersonal exchange, tourists, foreign students, employment, Japan